

PA-69

경남지역 마늘·양파 후작지 직파재배에 적합한 총체벼 품종이성태^{1*}, 성덕경¹, 남진우¹, 김영광¹, 최용조¹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, 경상남도농업기술원**[서론]**

최근 우리나라는 쌀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년 쌀 재고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다. 경남은 마늘, 양파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9,000 ha 이상으로 많은데 이런 작부체계에서 벼를 늦게 이앙하면 수확이 늦어져 쌀 품질저하에 의한 지역 쌀 이미지 저하 우려도 있다. 본 시험은 쌀 수급조절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남지역 소득작물 후작지 직파재배에 적합한 총체벼 품종을 선발하여 농업인에게 영농정보를 제공코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총체벼 직파시기는 마늘 후작으로 6월15일, 양파 후작으로는 6월25일로 2개 처리구를 두었다. 시비량은 질소-인산-칼리=18.0-9.0-11.4 kg/10a 을 사용하였다. 시험에 사용된 총체벼는 8품종으로 조농, 녹양, 녹우, 목양, 목우, 영우, 청우 그리고 미우를 사용하였다. 총체벼는 사료수량과 가치가 높은 출수 후 30일에 수확하였다. 총체벼 NDF (neutral detergent fiber), ADF (acidic detergent fiber) 함량은 Goering과 Van Soest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. 총가소화양분 TDN (total digestible nutrients)은 ADF와 NDF 측정값을 이용하여 $TDN(\%)=88.9-(0.79 \times \%ADF)$ 값을 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마늘과 양파 후작으로 총체벼를 6월15일과 6월25일 직파하여 수확하였을 때 모든 품종의 사료 건물수량은 9.9톤/ha 이상, TDN 함량은 64% 이상으로 사료가치가 있었다. 6월15일 총체벼 직파 시 마늘 파종 한계기(10월20일)를 초과하여 수확되는 녹우, 목양, 목우, 청우 품종은 적합하지 않았다. 마늘 후작지 총체벼 최적 품종은 영우로서 TDN 함량은 67.7%, TDN 수량은 10.3톤/ha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우로서 TDN 함량은 70.6%, TDN 수량은 9.3톤/ha 이었다. 6월25일 총체벼 직파 시 양파 정식 한계기(11월1일)를 초과하여 수확되는 녹우, 목양, 목우, 청우, 미우 품종은 적합하지 않았다. 양파 후작지 총체벼 최적 품종은 영우로서 TDN 함량은 70.2%, TDN 수량이 10.1톤/ha 으로 가장 높았다.

*주저자: Tel. 055-254-1222, E-mail. lst08@koea.kr